

“포천 로타리를 나눔의 손길로”

황광익 포천로타리클럽 제20대 회장 취임

국제로타리 3690지구 포천로타리 클럽 2007-08년도 제20대 회장에게 황광익 회장이 취임했다.

지난 28일 포천여성회관에서 제19대 포천로타리클럽 박승찬 회장 취임식과 제20대 황광익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로타리를 나눔의 손길로”라는 2007-08년도 포천로타리클럽 테마를 선정한 황광익 회장은 취임사에서 “치분 박승찬 회장님의 바톤을 받아 확고한 봉사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끝인점을 향해 무한 질주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회원증강과 로타리 지식함양에 중점이 될 것. 불우이한 이웃은 물론 지역사회의 진정한 어두운 것을 찾아 등불이

될 것. 봉사파트너인 동남과 인터랙트클럽과 한층 격상된 봉사정신을 개발 봉사활동 실시, 노후된 포천로타리클럽 상징탑 리모델링으로 홍보활동에 초석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황 회장은 “로타리안 서로간의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데 특진 의사가 되겠다”면서 “봉사 프로젝트 계획을 성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역대 회장들과 회원들의 조언과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승찬 19대 회장은 이임사에서 “1년이라는 시간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앞장서 나아가자’ 라는 2006-07년도 테마를 가지고 ‘초아의 봉사’ 대열에 앞장서



오면서 회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땀 흘려 봉사하는 시간만큼은 어디서도 얻지 못할 값진 선물을 얻었다”면서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회원과 영부인님들의 이 끌어 주심과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 희망스타트센터 개소식

저소득 가정 임신부 아동보호 프로그램



포천시는 6월29일 소흘읍 송우리 주공3단지아파트 관리동 1층에서 박윤국 포천시청, 이주석 경기도의회의원, 이강림 포천시의회회의장, 관내 기관장 및 단체장, 학부모,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스타트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지원활동에 들어갔다.

희망스타트 사업이란 저소득 가정의 임신부 및 0~12세미만 아동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와 정부가 나서서 돕자는 한국형 아동지원 프로그램이다.

시 관계자는 건강, 교육, 복지 등 통합적이고 예방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아동에게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뜻

에서 시작된 아동보호 통합서비스 사업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희망스타트센터에서 전개하게 될 사업은 건강, 교육, 복지 사업이 있다.

건강지원 사업은 임신부 및 영아의 건강관리는 물론,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교실 운영, 구강검진, 영양교육 등의 사업이 전개되며 교육사업으로는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학습지 지원 및 영어교실, 가정방문을 통한 연령별 맞춤보육 등 포괄적 보육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복지사업에는 학교사회복지실운영, 방과 후 공부방 운영,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예비중학생 프로그램 등을 전개한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단결과 화합의 장으로 발전

포천신문 골프회 6월 우승 이찬우 회원



포천신문골프회 6월 정기 라운딩에서 이찬우(오른쪽)회원이 핸디 8타를 줄여 우승을 차지해 박노현(왼쪽) 회장의 축하인사를 받고 있다.

포천신문 골프회(회장 박노현)는 6월28일 포천아도니스 골프장에서 제15차 월례회의 및 라운딩을 갖고 단결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했다.

월례회의에서 박노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말로 다소 걱정했으나 무사히 건강하게 경기를 마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회원 모두 운동을 통해 서로 화합하고 포천신문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최효열 상임고문은 “여러분들의 열려지력으로 포천신문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밝히고 “각 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된 포천신문골프회가 포천신문 발전의 견인차 역할

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희준 고문은 “장맛비 예보속에서 비 한방울 맞지 않고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최효열 발행인을 비롯한 포천신문 전 가족의 강한 단결력으로 가능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포천신문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메달리스트 한희준 고문▶우승 이찬우 회원▶준우승 최두열 회원▶장타상 최효열 상임고문▶근접상 이수복 회원▶행운상 윤이용 회원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 ⑱ 소쩍새 [scops owl]

흉년과 풍년 알려 주는 農民의 친구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불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보다.”

미당(未堂) 서정주 시인의 유명한 ‘국화 옆에서’ 시구에 등장하는 그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왕방산 기슭을 저녁노을로 붉게 불태인 오후 시간만 되면 들려오기 시작하지 한 달여 만에 드디어 제 눈앞에 그 수수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귀뚜라미 오색딱따구리 등지를 관찰하러 왕방산에 올랐더니 어린 새끼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 이미 등지를 떠난 상태였고 소쩍새만이 저를 반기던 그 순간의 감흥이 새롭습니다.

옛날 우리 어릴 적 동네어귀 고목 나무에는 항상 소쩍새가 보금자리를 틀고 밤마다 울어대는 소쩍새의 울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던 그 추억의 소쩍새를 만난 것입니다.

소쩍새는 올빼미과에 속하는 종으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번식하는 여름철새이고 몸길이는 20cm가량이며, 1982년 11월 16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생김새는 암컷과 수컷이 같지만 깃털 색깔은 갈색형과 적색형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솔쩍’하고 울면 다음해에는 흉년이 들고, ‘솔쩍다’ 라고 울면 ‘술이 작으니 큰술을 준비하라’는 뜻에서 다음해에 풍년이 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사의 흥·흉년을 알려준다는 농민의 반가운 친구입니다. 소쩍새는 초저녁부터 새벽에 걸쳐 밤새도록 울지만 경계심이 무척 강해서 밤에는 좀처럼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행성이어서 좀처럼 낮에는 관찰하기가 어려운 소쩍새가 대낮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마도 부화한 어린 새끼들의 성화에 못 이겨 먹이사냥을 나온 것으로 추정되며 우연한 기회에 어미새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행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사진 3장만 남기고 훌쩍히 사라진 녀석이 좀 알밋기도 합니다.

그렇게 알밋은 녀석을 만나기



2007.06.09 포천시 왕방산에서 촬영

위해 같은 장소에 3번이나 더 갔지만, 멀리서 그 아름다운 소리가 감속되고, 파다한 농약사용으로 인하여 이들의 먹이가 되고 있는 곤충들의 급감에 그 이유가 있지 않나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담고있는 소쩍새들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보존하여 우리 후손들도 아름다운 소쩍새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소쩍새의 숫자가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산업화와 더불어 이들의 서식지가 감소되고, 파다한 농약사용으로 인하여 이들의 먹이가 되고 있는 곤충들의 급감에 그 이유가 있지 않나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담고있는 소쩍새들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보존하여 우리 후손들도 아름다운 소쩍새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소쩍새의 숫자가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포천신문 조사위원
 이상일
 017-705-0994



앞선 기술력으로 고객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

에원은 오랜 현장 경험을 위주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입니다



토목 · 건축 상담 환영

신축 · 증축 리모델링
 주택 · 공장 · 상가
 냉동 · 냉장창고

완벽한 설계 · 시공 · 철저한 A/S



-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는
에원 건설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426 대표전화 031)536-4200 FAX 031)541-8567
 대표:이두원 019)328-0357 이사:박관희 017)702-5288 부장:박상용 016)474-1868